우리 딸내미가 영 수상쩍다

(딛1:5~16)

10.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딸내미가 영 수상쩍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영 수상쩍다'
여러분, 우리 한때 그런 포스터에 파묻혀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벽에도 쓰여 있고, 특히 해안가라든지 이런데 보면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말입니다.
수상하다, 쉽게 말하면 보통과는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게 수상한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섞여있는 가운데 수상한 사람은 그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서도 수상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상한 것이 되지요.

이렇게 수상한 행동은 왜 나타날까요?
수상한 마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상한 것이고, 또 이제까지 없던 무슨 새로운 것이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행동이 수상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서울 시청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 3만 명과는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겠지만 유독 다른 사람으로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폭파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9999명은 아무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만 폭파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행동이 수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딸내미가 수상쩍습니다.
20세라고 가정하면, 어느 날부터 좀처럼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도 궁금해서 문 앞에 가보면 소곤소곤 하고 킥킥거리면서 전화를 하는데, 한두 시간은 보통이에요, 다음 달에 보니 전화요금이 20만원 나왔어요.
생전 옷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사계절 청바지 하나로 때우던 머슴아 같은 애였는데, 갑자기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렇게도 좀 꾸미고 다니라고 해도 생전 화장을 안 하고 다니더니, 엄마 화장대를 기웃거리면서 '엄마! 밤에 바르고 자면 피부가 좀 보시시 해지는 화장품 없을까?' 그럽니다.
10시가 되도 안 일어나는 아이가 쉬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잔뜩 꾸미고 집을 나갑니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한다든지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할 때도 혼자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대화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때도 없이 피식거리고 웃고 그래요.
이건 뭐 완전 수상합니다, 십중팔구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랑에 점점 깊이 빠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왜 수상합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애인이라는 게 담겨져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애인이라는 게 담기고 나니까 애인이 안 담겼던 20년 동안의 딸과는 전혀 다른 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상한 마음에서 수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남파간첩보다 행동이 더 수상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푹 빠질만한 애인이 생긴 딸내미보다도 더 수상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보십니다.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화가 나서 오른편 뺨을 쳤어요, 근데 '아, 화가 많이 나셨군요? 죄송합니다, 왼편도 때려주세요, 저는 왼편까지 맞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도대체 돌았나?' 수상한 거예요, 수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지금 재판을 걸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편 사람이 '아니, 이거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수상한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고' 아니 웬 오버입니까? 오리만 같이 가면 되는데… '오버 하는 것 보니까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수상하다는 거예요.
때리다가도 멈칫 하겠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조르다가도 십리를 가주겠다고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수상한 행동을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상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깁니다.
수상한 마음에서 수상한 행동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 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합니다.
근데 루터가 바울에게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신하고 평생을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거예요, 행함으로 부인하는 것은 야고보에게 가면 행함이 없다는, 다른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딴 행위를 하니까 행위

가 없다고 한 것이고, 오늘 바울은 그 다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자,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라는 뜻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원이 되고 믿음이 구원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이라는 걸 야고보도 알아요.
근데 이 말 뜻은, '네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애인을 마음에 담으면 20년 동안 하지 않던 수상한 행동이 나오는 게 마땅한데,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은 다음에도 행동에서 수상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담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루터가 주장한 교리는 야고보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야고보사도가 말씀하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그른 믿음이냐를 확증할 수 있는 길을 야고보사도가 말해준 거예요.
지푸라기 복음서가 아니라, 더 확고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복음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보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거기에 걸 맞는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담겨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게 무얼 말하는 겁니까?
어제, 사도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 경건에 이르는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꺼내서 드리는 것이고, 그걸 방향을 달리 해서 볼 때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집어넣기도 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들어도 돈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선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마음에 그만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오는 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자식의 형통이 들어와 있고, 자식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라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것이다, 이게 믿음이지요.
사업이 잘돼야 내가 기쁠 것이다, 요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게 양심이 더러운 것입니다.
양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예언적인 태도가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언적인 태도가 양심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양심인데, 내 속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넣고 출세와 권력을 집어넣고,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추구하고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양심이 돼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수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고 말한 어떤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 구약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레데 출신인데, 아테네에 가서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다 죽습니다, 의사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고향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BC 5~6 세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레데 섬에 교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에피메니데스의 말에 적용되는 그레데 사람들을 섞어놓아도 남파간첩이 수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수상하게 보이는 구석이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에요.
수상하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과 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라고 얘기해요, 꾸짖으라.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단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얘기는 오히려 가까이 끌어당기라는 얘깁니다, 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꾸짖을 때, 말썽 안 피우는 자식은 멀찌감치 있어도 가만 놔두고 흐뭇하게 바라만 보지만, 말썽쟁이 자식은 어떡합니까?
"너! 이리와!" 가까이 끕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때리려고 해도 가까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딸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과에서 MT를 갔는데, 제대하고 복학한 오빠가 술에 잔뜩 취해 애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애인이냐고 싫다고 하는데, 술에 취해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그냥 애인 해줄게!'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술기운에 얻어낸 답을 가지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처럼 처음 예수 믿는 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경황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도 마찬가지에요.
아직 마음속에는 그 과 오빠가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칼로 무 베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 오빠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정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애인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애인이 됐다고 하는데도 집에 들어왔을 때, 애인이 없을 때와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애인의 존재가 마음에서 묵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전화를 오래 하고 싶고, 좀 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전화하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애인이 없을 때 집안에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는 다른 애인들이 가득이에요.
돈을 애인 삼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애인 삼고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잘돼야 된다고 자식을 애인 삼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애인으로 삼아야지' 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까지 애인 삼고 있던 존재들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꾸짖으라는 얘기는, 그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는 양심을 돋워내라는 얘깁니다.
양심을 살려내라는 얘기에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구나!'
사업이 잘되기를 바래가지고 사업이 먼저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꾸짖음 받음을 통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져 있구나!' 하고 알게 하라는 얘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사업, 돈, 가정의 번영, 출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유대주의적 성향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네가 열심히 행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정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일개 가정이 무너뜨려진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어느 가정을 중심으로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게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정 가정 다니면서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레데라는 섬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몇몇 가정들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례를 중시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나 규례나 이런 믿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이야기, 이게 율법주의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와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얻어낸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버린다는 얘깁니다, 마음에는 더러운 게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 중에 믿지 않고 사는 배만 위하고 더러운 짐승같이 살고 있다고 그레데 출신의 현자가 말했던 그 묘사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도 아무 다른 수상한 점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사귑니까?
자꾸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해서 마음이 진짜 영이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만나야 사귀어지고 만나야 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는 돈이 있고, 돈 때문에 싸우다가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 뺨을 내주는 일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왼편 뺨을 내주면 아마 돈이 많이 벌리겠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들어있으면 계속 더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죽고,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점점 친해진 상태에서 자식을 대하면 자식이 깨끗하고 사업을 대하면 사업이 깨끗하고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돈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자식을 만지면 자식도 더러워집니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기껏 '너 그래갖고 돈 못 벌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도 더러워져요, '이 친구가 돈이 좀 있나, 없나?'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다른 친구들은 처갓집이 잘살아서 덕도 많이 보던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궁상맞은 처갓집을 만나서 도움이라고는 못 받고 사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도 수상쩍은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며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수상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십자가 예수님을 생활화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그전에 애인으로 삼았던 것들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해서 바로 산상수훈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양심이 되살아나면서 점점 '내가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마음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애인 삼아 마음에 넣고 있구나!'
마음에 넣고 있는 게 믿음인데 다른 걸 넣고 있으니 안 되겠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늘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갑니다.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친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이 내 애인이고 아버지로 마음에 딱 자리 잡을 때 완전, 수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믿음과 행동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생전 처음 애인이 생긴 딸내미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온통 수상하기만 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진짜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인 수상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